

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이 사랑 안에서 씻겨 줌

2/6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3:1, 3-5, 8

1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3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4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겹옷을 벗어 놓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직접 허리에 동여매셨다.

5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허리에 동여매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셨다.

8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대를 씻겨 주지 않는다면, 그대에게는 나와 함께 나눌 몫이 없습니다.”

벤전 5:5

5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롬 12:10

10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요일 4:11-12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 장 1 절은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한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러므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사랑의 문제, 즉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 이것은 발을 씻겨 주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발 씻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 이 문제를 돌보셔야 한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려고 하셨을 때, 자신의 겹옷을 벗어 놓으셨다(요 13:4). 여기서 겹옷은 비유로서 그분께서 표현하신 그분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존재의 표현을 벗어 버리신 것이다.

주님은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요 13:5). 여기서 물은 성령(딤후 3:5), 말씀(엡 5:26, 요 15:3), 생명(요 19:34)을 상징한다. ... 주님은 성령의 일, 말씀의 빛 비춤, 내적인 생명의 법의 운행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씻겨 주신다. 성경에서 이 세 항목은 각각 물로 상징된다.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27 장, 352-35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육체 되심을 통하여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셨다. ... 우리의 영에 관하여 말하자면,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가져왔고,

주님의 가심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적인 몸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 이 땅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는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었지만, 우리의 몸 안에서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고,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 안에서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있다. 우리의 거듭난 영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더 이상 옛 창조물이 아니고 새 창조물이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다.

비록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가졌고 교회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이 육체 안에서 이 땅 위에 살고 있다. 땅에 속한 접촉을 통해 우리는 자주 더러워진다. ... 고대 유대에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대개 걸어 다녔다. 즉, 그들의 발로 땅을 접촉했다. ... 따라서 발 씻음은 그들에게 꼭 필요했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죄가 있는 것과 더러워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전혀 죄가 없을지라도 매우 더러울 수 있다. 아마 그릇된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땅에 속한 접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울 것이다. ... 우리는 끊임없이 땅을 접촉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 결과 많은 때 우리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발 씻음이 필요하다.

특히 유대인들은 잔치에 왔을 때 발을 씻는다. 잔치는 교통의 중심이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는데, 길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더러운 상태로 잔치에 왔을 때, 상에 앉아 발을

뻘으면 먼지와 냄새가 틀림없이 교통을 방해했을 것이다. 따라서 유쾌한 잔치를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했다. 서로 교통하는 곳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교통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만 했다. 씻지 않는다면 교통이 방해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상에서 교통하기 전에 씻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즐거운 교통을 전혀 갖지 못했을 것이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27 장, 353-35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27-28 장

2/7 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3:5

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낚은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요 15:3

3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 준 말로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겔 36:25

25 내가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리리니, 너희가 정결해질 것이다.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온갖 우상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히 10:22

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시 51:10

10 오, 하나님!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제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엡 5:26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요 17:17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들의 책이기 때문에, 발 씻김에 관하여 요한복음 13 장에 기록된 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하나의 표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우리는 발 씻김을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내재적으로 더 깊고 더 중요하고 영적인 의미로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발 씻김의 의미는 주님과 교통하고 서로 교통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땅을 접촉한다. ... 발 씻김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님께서 땅에 속한 접촉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더러움에서 우리의 행함을 항상 깨끗하게 지켜 주신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3 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므로써 하나의 본을 세우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교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님과 서로를 누릴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발 씻김이 필요하다. ... 오늘날 세상은 더러워서 우리 성도들은 쉽게 오염된다. 우리가 주님과 즐거운 교통과 서로 간의 즐거운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들

서로가 사랑 안에서 영적인 발 씻겨 줌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27 장, 35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많은 때 우리는 죄가 없지만 더럽다. 먼지는 어느 곳에나 있다. 더러워지기가 얼마나 쉬운가. ... 심지어 우리는 차를 몰고 길을 따라서 집회에 가는 도중에도, 우연히 눈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다. 차를 타기 전에 우리의 영은 살아있었고 높이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 집회소로 가는 도중에 다만 어떤 것들을 보므로써 우리는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은 가라앉는다. 때로는 심지어 교통하는 중에도 더러워질 수 있다.

죄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서 피의 씻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죄는 없지만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서 영적인 씻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서 성령과 살아 있는 말씀과 내적인 생명의 씻음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27 장, 356-357 쪽)

많은 일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한다. 이 일들은 꼭 죄는 아니지만 세상과 관계있으며 이 세상을 접촉함으로 생겨난다.

여러분은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늘이 아주 가깝다고 느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나가서 매우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며 조금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자. 그렇게 세 시간이 지나고 여섯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될 때, 여러분은 여전히 하늘이 아침에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가깝다고 느끼는가?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부는 집안일을 한다. 여러분이 이러한 많은 일들로 바쁘게 되면 하늘이 여러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것이다. ... 이때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할 말이 없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피상적인 글자만 만질 수 있을 뿐 안의 실재는 만지지 못한다. 기도 집회 때 여러분은 기도하려고 하지만 속에는 기도할 말이 없다. 간신히 기도할 어떤 말이 생각날지라도 양심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여러분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고 여러분의 말과 목소리가 이전과 같지만, 그 의미와 맛은 이전과 같지 않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다고 느끼지만,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는 찾아내지 못한다. ...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적용해서 그 죄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죄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은 단지 속이 어두컴컴하고 원래 있던 청명함을 잃었다고 느낄 뿐이다. ... 이 문제는 일반적인 죄들과는 다르다.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바로 발을 씻는 것이다. 그렇다면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인가? 발을 씻는 것은 죄짓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난다. ...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질 수 없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도 씻겨 주셨다.(워치만 니 전집, 42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2), 31 장, 18-2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42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2), 31, 36 장

2/8 수요일

아침의 누림

요 13:14-15, 34-35

14 주이며 선생인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15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준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행한 것같이 여러분도 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4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35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써 여러분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마 6:6

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고후 3:6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롬 12:16

16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갈 6:2

2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살전 3:12

12 또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증가하여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피가 아니라 그 영과 살아 있는 말씀과 내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씻겨 주실 것이다. ... 때로는 단지 몇 분이던 더러움이 씻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만나절이 걸릴 수도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씻겨 줌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단순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내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도록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살아 있는 무언가가 물을 주고 흐르며 우리를 씻겨 줄 것이고, 우리는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은 고양될 것이고, 우리의 온 존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으로 즐거울 것이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27 장, 35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서로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도 필요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겨 주라고 말씀하셨다. ...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일을 공급함으로, 말씀의 빛 비춤을 공급함으로, 내적인 생명의 운행을 공급함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일과 말씀의 빛과 내적인 생명의 운행 안에서 씻어지도록 나는 여러분을, 여러분은 나를 돕고 우리는 서로를 돕는다. 우리 형제들은 교통하고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마다, 영적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자신의 겹옷을 벗어 놓으셨다. ... 비유에서 겹옷은 주님께서 표현하신 그분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하며, 겹옷을 벗으신 것은 자신의 존재의 표현을 벗어 버리신 것을 상징한다. ...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 주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성취들과 미덕들과 속성들을 벗어 버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이고, 진정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 줄 수 있을 정도까지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

많은 믿는 이들이 매우 영적이지만 또한 교만하다. ... 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다른 이들은 결코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본 적이 없거나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한다. ...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겹옷을 벗어 버리고 우리가 획득한 것을 잊어야 한다. ... 우리는 모두 이런 태도로 인하여 죄를 지었다. ...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결코 남을 도울 수 없다. ... 우리는 반드시 영성의 모든 지위를 벗어 놓고, 단순하고 일반적이 되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속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나는 오직 내 허리에 동여매 수건 하나, 곧 한 조각의 천만 갖고 있을 뿐이다.” ... 때때로 사람들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태도로 위협하듯이 온다.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옷을 입고 오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생명이라는 제복을 입고 온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소위 은사들이라는 제복을 걸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제복을 벗어 놓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느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우리보다 더 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빚졌고,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자신의 겹옷을 벗어 놓고, 자신의 수준을 낮추며,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겹옷을 벗어 놓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제를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형제에게 “형제님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28 장, 361-36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2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33-34 장

2/9 목요일

아침의 누림

시 23:2-3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3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

행 3:20

20 그러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임명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겔 34:14

14 그들을 좋은 풀밭에서 먹이리니, 그들의 거처가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 있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좋은 거처에 누울 것이고,

이스라엘의 산들에 있는 풍성한 풀밭에서 먹을 것이다.

시 110:3

3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신 34:7

7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백이십 세였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을 잃지도 않았다.

시 92:12-14

12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13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어져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며

14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고 진액이 가득하며 항상 푸르니

우리는 우리의 성취들이라는 겹옷을 벗어 놓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수건을 우리의 허리에 동여매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묶이고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려야 함을 의미한다. 주님은 발을 물로 씻겨 주셨고, 허리에 동여매셨던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묶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자유로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다른 이들을 손상할 것이다. ... 단순히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할 목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한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28 장, 36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각 사람은 형제자매들에게 영적으로 발을 씻겨 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때때로 내가 여러분을 방문할 때,

여러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 줌으로써 어느 정도 나의 발을 씻겨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사랑을 보여 줌으로써, 어느 정도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어 여러분을 땅에 속한 접촉에서 깨끗하게 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사이의 교통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사랑으로 이렇게 발을 씻겨 줄 때에만 서로 간에 교통이 유지될 수 있다. ... 이십오여 년 전에 나는 워치만 니 형제님과 인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에게서 이러한 발 씻김을 받아 많은 도움을 얻었다. 그들을 접촉할 때마다 나는 땅에 속한 접촉에서 나를 깨끗하게 지켜 주는 일종의 발 씻김을 느끼곤 했다. 그들은 나를 사랑했고, 땅에 속한 접촉에서 깨끗하게 되도록 영적으로 나의 발을 씻겨 줌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보여 주었다.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28 장, 367 쪽)

요약하자면 우리의 더럽혀진 발은 우리와 주님의 교통이 진부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깨끗한 발은 주님과 신성한 교통을 의미한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 년이나 십 년 전만큼 오늘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일 년 전에 가졌던 것과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발은 더럽혀졌고 그들은 지쳤다. 이것은 영적으로 지친 것으로서 영적인 신선함과 활력을 잃은 것이다. ... 발 씻김은 여러분의 이전의 느낌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생명의 신선함 안으로 이끌어주어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을 갖게 하며,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주님께서 늘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이 영적 성장에서 정체되었다. 그들은 심지어

찬송과 찬양과 기도조차도 마지못해서 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 그들이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신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는 이유이다(시 23:2). ...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신선하기를 원하신다. 어제는 누렸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다시 푸를 수 있다. 오전에는 누렸을지 모르지만, 오후에는 푸를 수 있다. 주님은 신선한 생수이시다. 그분은 오 분간 흐르다가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월 매년 계속 흐르신다. 그분은 일 분도 멈추지 않으신다. 그분은 항상 신선하시며, 우리를 계속 신선하게 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능력, 기쁨, 평안, 거룩함이다. 오직 이럴 때에만 주님의 생명을 살아 낼 수 있다. 여리고성을 이긴 후에 아이성도 이겨야 한다. 큰 승리가 있는 후에 날마다 작은 승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일 가져야 할 체험이다. (워치만 니 전집, 42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2), 31 장, 21-2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1 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젊은이, 1 장

2/10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16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롬 6:4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롭음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딤후 3:4-5

4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시 27:1, 4

1 여호와야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요 14:26

26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빌 1:19, 21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특별히 동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의 임재가 죄인들과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안에 의(義)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만들어 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 우리 안에는 반드시 매우 비밀스러운 신선함과 능력과 자양분과 공급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강하게 이끌릴 것이다.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한 결과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될 것이다. ... 설령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람들 안에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 역시 여러분의 실패이다. (워치만 니 전집, 42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2), 31 장, 24-2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많은 사람들이 바버 자매님을 알고 있고, 그녀가 매우 특별했음을 증언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녀에게 가서 잠시 그녀 앞에 앉아 있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된다. 여러분은 그녀에게는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없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되며, 그녀에게 있는 것을 얻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십오 년 전(1921년)에 주님을 갖 믿었을 때 대단히 교만했다. 나는 하루에 성경 한두 장을 읽고서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외면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적지만 내면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많다). 나는 내가 이해한 것을 그녀에게 들려주려고 그녀를 찾아갔다. 내가 그녀와 함께 몇 마디 기도를 한 후, 그녀가 나를 책망하기도 전에 나는 자신의 교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음을 알았다. 이것이 발씻김이다. 나는 그녀의 임재에 의해 발이 씻어졌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낮고 어두웠지만, 그녀 앞에 가자마자 신선함을 얻고 빛을 얻게 된 것이다. ... 어떤 때 여러분은 한 형제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씻어졌음을 느낀다. 자신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살아남을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지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다.

며칠 전 나는 발이 더러워졌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여 죄를 처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주 멀리 계셨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느꼈다. ... 후에 나는 한 자매를 보러 갔는데, 그녀는 아마 구원받은 지 이삼 개월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나에게 구원받은 과정을 말해주었고, 가족들이 그녀를 박해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서 도움을 얻기 바랐다. 이 말을 들은 후에 나는 그녀에게, 내가 왔을 때는 내 발이 더러웠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녀의 간증이 나의 낡은 체험을 씻어 내 주었다고 말했다. 디도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3:5)을 말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신선하고 생생하도록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줄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한 생활을 살아 내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줄 수 없다. ... 언제나 신선해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줄 수 있다.

주님은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요 13:14)라고 말씀하셨다. ... 예전에는 영적인 신선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사람은 모두 발이 씻어져야 한다. 우리 각 사람의 발은 씻어져야 하며,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은 “주이며 선생인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모든 봉사 가운데 발 씻김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17 절) 나는 위(俞) 형제가 늘 말하는 “오늘의 성경이 어제의 성경보다 더 보배롭습니다.”라는 한마디를 귀하게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날마다 신선한 영적 체험을 갖기를 바란다. 로마서 15 장 32 절의 <다비역 성경>은 바울이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발 씻겨 줌의 결과이다. (워치만 니 전집, 42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2), 31 장, 25-2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37 권, 일반 메시지(1), 18 장

2/11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5:18

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롬 15:32

32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고후 3:16-18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얼굴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롬 8:4, 6, 16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다고 하자. 여러분은 입으로 어떤 찬양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태로 저녁 집회에 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한다고 하자. 여러분이 기도를 반쯤 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기도가 문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이 부자연스러워서 기도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때 집회 가운데 영이 아주 신선한 한 형제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을 신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영적인 기운이 새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다. 많은 때 우리는 집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영이 약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성경을 읽지만 분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이의 발이 더럽고 씻겨 줄 물이 한 대야도 없기 때문이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의 영을 꺼 버리는 것 같다. 이때 발을 씻겨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 그가

일어나서 짧게 기도를 하거나 몇 마디 말을 한다면, 즉시 집회가 신선하게 바뀐다. ...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예기치 않게 여러분의 집에 잠시 들러 이야기를 나누거나 간증을 할 때,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리게 된다. 본래는 하나님과 간격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러한 형제나 자매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면 모든 간격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워치만 니 전집, 42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2), 36 장, 88-8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려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반드시 수시로 주님과 교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성령 안에 살아야 한다. 그럴 때에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줄 수 있는 생수를 가질 수 있다. 집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줄 수 있는 생수가 있어야 한다. 결코 물 없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도리어 다른 사람의 발을 훨씬 더 더럽힐 것이다.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 줄 수 없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지만, 그의 영은 분명히 늘 냉담할 것이다. 주님은 오늘날 누군가의 발을 직접 씻겨주지 않으신다. 그 대신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 주게 하신다. 우리 모두는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워치만 니 전집, 42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2), 36 장, 89-90 쪽)

우리는 우리를 땅에 속한 접촉에서 깨끗하게 해 주고 우리의 영적인 교통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 주는 영적인 발 씻김이 필요하다. 그럴 때 교회생활이 실현될 수 있다. 교회생활이 신선하고 새로우며 유쾌하고 살아 있게 유지되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러한 발 씻김이 필요하다. ... 각 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새로움과 신선함 안에 보존될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가셨다. 이제는 신성한 영과 우리 사람의 영의 참된 연합이 있다.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고,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었다. 이것이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는 하늘에 속해 있고 영원하며 영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물질적인 몸 안에서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있으며 옛 창조물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몸의 교통과 주님과 교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땅에 속한 모든 접촉에서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교통은 발 씻김에 의해 유지된다. 발 씻김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통, 서로 간의 교통은 발 씻김 없이 결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교회생활은 실현될 수 없다. 사실상 교회생활의 실재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한 면으로는 주님 자신께서 해 주시고 다른 한 면으로는 모든 성도가 해 주는 발 씻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교회생활을 갖게 하는 탁월한 교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28 장, 368-36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8 장

찬송: 16 (英) 오 아버지는 소나무처럼 (中:11)

1 상록수처럼 새-로운- 우리의 아버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늘 살아 계시네

(후렴)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 년 가도 신선해- 영원히 영원히.

2 새로운 하나님- 없으면 다 낡아져가도
아버지 계시면- 새로워 세월 지나가도

3 우리가 얻은 아-버지- 복 모두 새로워
새 언약 새 길 모-두 다- 영원히 새롭네

4 오 우리 주의 새- 창조- 날로 더 새로워
새 마음 새 영 강-건해- 새 생명 충만해

5 새 하늘 새 땅 새- 성엔- 모두가 새로워
달마다 새 실과- 맺어- 묵은 것이 없네

6 오 새로우신 아-버지- 늘 찬양하겠네
늘 새로우신 아-버지- 영영 찬미하리

2/12 주일

아침의 누림

벧전 5:2-10

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3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 떼의 본이 되십시오.

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5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6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7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8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9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2023. 2. 6 ~ 2023. 2. 11

단체로 읽을 말씀: *The Economy of God and
the Mystery of the Transmission of the Divine
Trinity*, 9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42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2), 31, 36장